

제687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2년 8월 17일)

## 실감콘텐츠 <조선시대 초상화>

서윤희, 디지털실감영상관 2관 18:00~18:30

오늘날 사람들은 순간순간을 담아내기 위해 자신의 모습을 담은 셀피(selfie)를 찍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모든 모습을 찍을 수 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합니다. 핸드폰만 갖고 있다면 누구든지 지금의 나를 언제든 찍을 수 있습니다.

반면 조선시대 초상화는 왕과 왕족, 고위관료나 사대부 등만이 제작할 수 있었고, 사당이나 영당影堂, 서원과 같은 추모 공간에서 제의祭儀의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초상화가 그 사람을 온전히 대신한다고 생각해 수염 한 올, 상처나 점 하나, 정신까지도 담아내고자 하였습니다.

새롭게 개편한 디지털 실감 영상관 2관에서 다양한 <조선시대 초상화>를 흥미롭고 실감나게 8K 고해상도 미디어 월로 만날 수 있습니다. 항상 전시 진열장 너머에서 눈으로만 감상하던 초상화와 서로 소통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복장을 한 <나의 초상화 만들기>와 초상화 그림 속 인물이 사진으로 바뀌는 <사진으로 보는 초상화>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였습니다. <다른 그림 찾기>는 60초 안에 원본 초상화와 나란히 놓여진 그림 속에 다르게 묘사된 부분을 찾으면서 초상화 속 특징적 요소와 표현을 난이도에 따라 즐겁게 놀이하며 즐길 수 있습니다. <한 눈에 보는 초상화>는 조선시대 초상화 73점의 특징적 요소(작자, 제작시기, 주인공 나이, 의복, 모자 등)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였습니다. 관람객이 초상화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유형별로 나누어진 단어들을 클릭하면서 개별 초상화들의 정보를 꼬리에 꼬리를 물 듯 찾아갈 수 있습니다. 계속 맞물려 이어지는 그 연결이 초상화를 보는 묘미를 높여줄 것입니다.

디지털 실감 영상으로 초상화 속 역사 인물도 만나고, 내 모습을 조선시대 초상화로 셀피해 봅시다.



그림1. 디지털 실감영상관2 <조선시대 초상화>

## 특별전<아스테카, 태양을 움직인 사람들>(15)

박진일, 121호 특별전시실 18:00~18:30

아스테카는 아스틀란(하얀 땅) 출신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수호신 우이칠로포츠틀리의 예언으로 고향을 떠나 200년 가까이 유랑하던 중 부족의 이름을 메시카로 바꾼 후 14세기 무렵 멕시코 중앙고원 속에 있는 테스코코 호수 안에 있는 섬에 정착하게 됩니다.

세계 곳곳의 다른 문명과 비슷하게 아스테카 역시 태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중심으로 여러 신화를 창조했습니다. 다른 문명과 조금 다른 점은 신들의 희생 덕분에 세상과 태양이 움직이게 되었다고 생각한 점입니다. 인간이 이에 대한 보답을 해야 태양이 계속해서 움직인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아스테카는 하나의 통일국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메시카족이 세운 테노치티틀란이라는 도시국가가 중심이 되어 호수 주변의 테스코코, 틀라코판과 삼각동맹을 이루어 주변의 도시국가를 통제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통제의 방식은 전쟁과 공물이었습니다. 이런 개념은 아스테카 사회를 움직이는 기본 작동원리가 되었습니다.

전시는 아스테카의 주변부에서 중심부를 향해 몰입하는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즉 우주, 자연 환경, 아스테카의 수도 테노치티틀란, 그 중심에 있었던 신성 구역 그리고 대신전인 템플로 마요르(templo mayor) 순입니다. 기존에 우리에게 알려진 아스테카의 잔혹한 이미지가 다분히 기독교적 정복자의 관점에서의 이야기인데 전시는 인신공양으로 대표되는 희생의례 이면에 있는 아스테카 사회의 작동원리와 세계관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관람객 개개인이 이 전시를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림1. 인간의 창조자이자 지혜와 새벽의 신 케찰코아틀(깃털달린 뱀, 두 번째 태양)



그림2. 움직임의 태양 토나티우 (다섯 번째 태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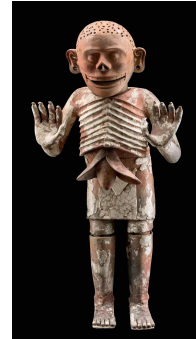


그림3. 지하세계의 신 므틀란테쿠틀리



그림4. 젊은 옥수수의 신 실로넨

## 전곡리 유적의 발견과 주먹도끼

이경수, 101호 구석기실 19:00~19:30

국내에서 처음으로 주먹도끼가 확인된 것은 1978년 연천 전곡리에서 미군 병사 그렉 보웬(Greg L. Bowen)에 의해서입니다.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 빅터 벨리 대학에서 고고학을 공부하다가 1974년 군에 입대하면서 한국의 동두천에서 주한 미 공군 하사관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1978년 한탄강 유원지에 한국인 애인과 함께 산책을 갔다가 토기편을 발견하고 그 주위를 조사하면서 주먹도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주먹도끼가 동아시아 구석기 고고학에 있어 기념비적인 발견이 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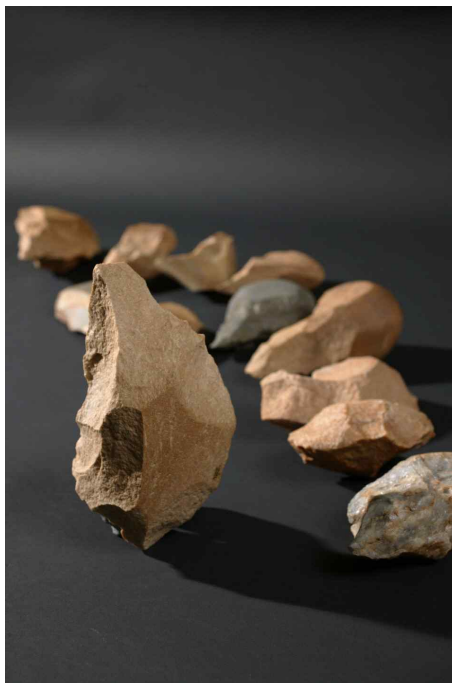


그림1. 국내 각지에서 출토된 주먹도끼

아슐리안 형식의 주먹도끼를 지표 채집한 그는 동아시아에서 주먹도끼가 가지는 중요성을 직감하고 귀대 후에도 다시 현장을 찾아 정확한 발견 지점을 표기하고 간략한 보고문도 작성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전기 구석기가 발견된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마음먹은 그는 프랑스의 구석기 대가인 프랑수아 보르드(Francois Bordes) 교수에게 편지로 이 사실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그의 학문적인 집념이 없었다면 동아시아의 구석기 문화는 지금까지도 모비우스의 찌개 문화권의 개념 속에서 평가받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까지 세계의 구석기문화 전통은 1940년대 초반 모비우스(Hallam L. Movius, Jr)가 제시한 개념이 통용되었는데, 서양은 주먹도끼 문화권(Handaxe Culture), 남부아시아와 동아시아는 찌개 문화권(Chopper-Chopping Tool Culture)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비우스 이분법적인 구석기 문화전통의 구분은 연천 전곡리를 필두로 동아시아에서의 주먹도끼의 빈번한 발견 사례의 증가와 함께 이제 폐기될 시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한국인과 호랑이

전인지, 201 · 202호 서화실 19:00~19:30

호랑이는 한국인에게 각별한 의미를 지니는 존재입니다. 한국인은 오랜 세월동안 호랑이와 살아오면서 호랑이의 강력한 힘을 동경하고 용맹함을 사랑했습니다. 호랑이는 액을 막아주는 수호신이자 무반武班의 상징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초상화에도 호피를 깐 의자에 앉은 모습인 ‘호피의좌상虎皮倚坐像’이 많습니다. 호피는 초상주인의 부귀와 내면의 용기를 나타냅니다. 또한 액과 복이 문으로 드나든다는 관념에 의하여 새해가 밝으면 문에 붙이는 세화歲畫에는 액과 잡귀를 몰아내는 호랑이 그림이 빠지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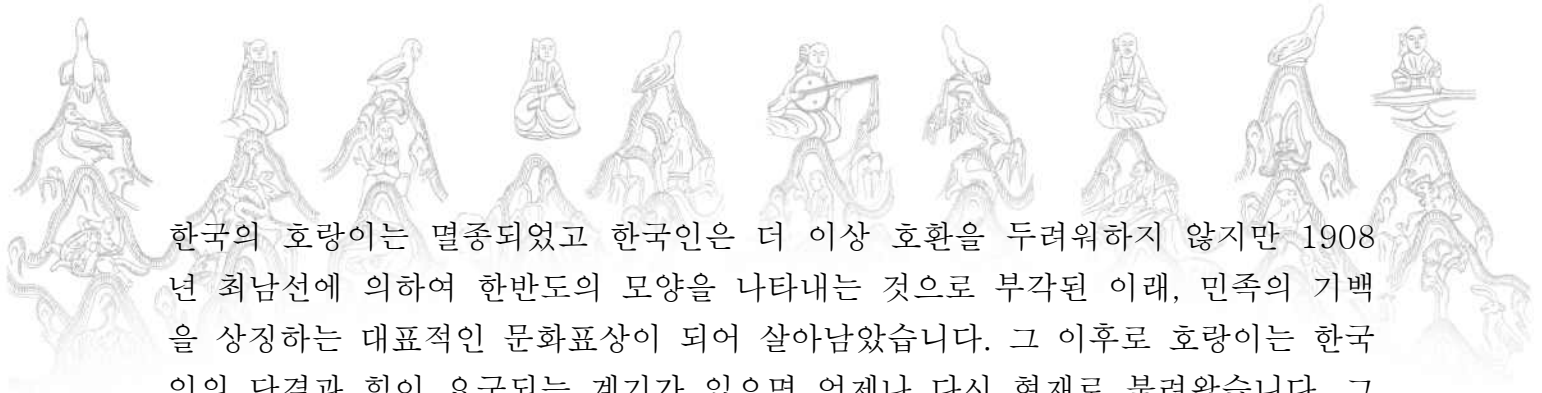
그림1. 호랑이와 매 판화

한반도에 살았던 호랑이에 대한 마지막 기록은 1921년입니다. 마지막 호랑이는 경주 대덕산에서 잡혔습니다. 1921년 경주 대덕산에 나무를 하러간 사람이 호환을 당했지만 간신히 살아남았고 호랑이는 결국 엽총을 가진 마을 사람들에 의해 사살되었습니다.<sup>1)</sup> 그리고 호랑이가 자취를 감춘 이유는 1910~1940년에 시행된 일제의 해수害獸 구제 정책이 큰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호랑이와 표범뿐만 아니라 각종 해가 되는 짐승들을 없앤다는 이 정책은 생태계의 질서를 교란시켰고 조충을 이용한 대량 살상이 이루어져 예상보다 빨리 호랑이를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sup>2)</sup> 물론 한반도 호랑이 멸절이 일제만의 책임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조선시대를 걸쳐 포호 정책捕虎政策이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호랑이가 한반도에서 자취를 감춘 뒤에도 호랑이는 한국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존재였고 한국 호랑이, 백두산 호랑이는 구미에까지 알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니콜라스 바이코프의 소설을 비롯하여 1935년 스웨덴동물학자 S베리만(Sten Bergman, 1895~1975)은 백두산 일대의 탐사와 사냥을 하며 한국 호랑이 포획을 꿈꾸었지만 결국 한 마리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sup>3)</sup> 이처럼

1) 엔도 키미오, 이은옥, 『한국 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 (과주: 한국학술정보), 2009, 147~155쪽

2) 신진숙, 「호랑이 사냥을 통해 본 식민지 경관의 생산방식 고찰」, 『동아시아문화연구』 69집, 2017.05.



한국의 호랑이는 멸종되었고 한국인은 더 이상 호환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1908년 최남선에 의하여 한반도의 모양을 나타내는 것으로 부각된 이래, 민족의 기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화표상이 되어 살아남았습니다. 그 이후로 호랑이는 한국인의 단결과 힘이 요구되는 계기가 있으면 언제나 다시 현재로 불러왔습니다. 그 예로서 88올림픽의 호돌이와 2002년 월드컵 국가대표선수의 유니폼 속 호랑이, 그리고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의 하얀 호랑이 ‘수호랑’을 들 수 있습니다. 동물상징이 유구한 역사와 결합되어 한 국가의 내면에 자리 잡는 것은 그 국민들의 내적인 요구가 결합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호랑이는 한국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문화표상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

3) S베리만, 『한국의 야생동물지』, 신복룡(역주)(서울:집문당,1999)